

# 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의 페티시즘에 관한 패러다임

## Paradigm on Designer Jean Paul Gaultier's Fetishism

변미연 · 이언영 · 이인성\*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박사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박사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부교수

Byun Mi-Yeon · Lee Un-Young · Lee InSeong

Ph. D.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 ·

Ph. D.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 ·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

### Abstract

Fetishism, which has been a taboo for a long time, is stimulating the modern people's emotions by being reborn as a fashion trend by a number of designers like Jean Paul Gaultier, Vivienne Westwood and Claud Montana. Especially, Jean Paul Gaultier, called the bad boy of the fashion industry, is leading the Paris fashion world by expressing his unique fetish elements with his fantastic and uncommon ideas-males' wearing of skirts, wearing underwear like outer garments.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at investigating how his fetishism is shown in his works, understanding his fetish fashion world in the modern fashion and offering a new stepping-stone for fashion designers to actively participate in new fashion areas.

It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sensual designer Jean Paul Gaultier has been expressing his unique fetish elements in his collections like the following three styles of fetishism-fetishism by physical emphases, fetishism by items, fetishism by material.

Second, the symbols of voluptuous beauty reflecting his own fetishism could be found in his movie costumes, license areas and given plots.

Third, the work describing Jean Paul Gaultier's fetishism as a fetish image with the concept of Fantasy of Missing was evaluated as a successful work to express an internal sexual desire.

Key Words : Jean Paul Gaultier, fetishism, fetish, voluptuous beauty

## I. 서론

### 1. 연구 목적 및 의의

인간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옷'을 통해 표출한다. 옷을 통한 이성과 다른 신체부위의 강조로 성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수치심을 커버하기도 하며, 미의 기준을 채우기도 한다. 이러한 인간 본연의 욕구를 시각적으로 충족시켜주었던 매개물인 '옷'은 성적욕망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인지되어왔으나 19세기 말 억압적인 빅토리아 성도덕과 세기말 풍조, 산업 자본주의 영향으로 성의 일탈행동들이 급속하게 대중문화 속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다른 양상으로 표출되었다. 인간의 은밀한 관능

부위를 오히려 더 부각시켜 성적 충동을 일으키거나 자극적인 비주얼을 강조하는 등 금기시 되었던 성에 대한 비이성적 숭배가 행해져 왔던 것이다. 이러한 행태의 성도착적 현상, 즉 페티시즘은 20세기에 들어와 하이패션의 중심테마로 등장하기에 이르렀으며, 사회적 성(gender)을 본연의 성(sex)으로 인지하는 한 수단으로 현대사회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듯 그동안 금기시 되어왔던 페티시즘은 현대패션에서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클라우드 몬타나(Claud Montana)등 수많은 디자이너에 의해 재탄생 되어 현대인들의 본연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패션계의 악동으로 불리는 장 폴 고티에는 보통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기발한 아이디어-남성의 스커트 착용, 속옷의 겉옷화 등-

\* Corresponding author: Lee In-Seong  
Tel: 02) 3277-4359, Fax: 02) 3277-2852  
E-mail: gaby@ewha.ac.kr

로 파리 패션계를 주도하며 페티시 요소를 그 특유의 미학으로 표출하는, 페티시즘과의 상관관계가 유기적으로 얽혀져 있는 디자이너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에 초점을 맞춰 고티에 특유의 미적 특성 및 조형미를 근거로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임소영(2003)은 컬렉션에 나타난 고티에의 조형미를, 김희선(2004)은 장 폴 고티에가 의상을 제작하였던 영화를 통해 조형미를 분석하였으며, 최은진(2002)은 아방가르드와 표현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장 폴 고티에의 작품이 현대 패션에 준 영향에 관해 고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관능성 표현에 초점을 맞추었던 선행 연구와는 달리 관능성을 중심으로 디자인에 내재된 페티시즘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장 폴 고티에 디자인 속에 내재되어 있는 페티시즘이 그의 작품세계에서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현대패션에 나타난 장 폴 고티에의 페티시즘 패션세계를 이해하며, 앞으로 새로운 영역에 대한 패션 디자이너들의 활발한 참여 발판의 제공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 2. 연구 방법 및 내용

이론적 연구로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을 통해 디자이너와 페티시즘에 관한 일반적인 배경을 정립하였으며,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장 폴 고티에의 최근 디자인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06까지 시기를 설정하여, 의상학 관련학문을 전공한 패션 전문가 집단 20인의 분류를 근거로 한 컬렉션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외에도 장 폴 고티에가 활동하였던 영화의상 영역과 라이센스의 영역을 각각 DVD 캡처 사진자료 분석을 통하여 고티에의 페티시즘적 디자인을 고찰하였다.

또한 실증적인 연구를 위해 이론적 배경 및 장 폴 고티에의 페티시즘에 관한 고찰을 토대로 페티시즘이 반영된 세 별의 의상 디자인 개발을 시도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는 1952년 프랑스 파리 출신으로 양장점을 경영하는 어머니와 미학자인 할머니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여성의 화장품과 의상의 연출에 관한 흥미를 느꼈다. 이러한 가족의 영향을 받

으며 자란 그는 패션잡지 등을 통해 피에르 가르탱(Pierre Cardin)이나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과 같은 디자이너의 교류를 통해 디자인을 시작하게 되었다(임소영, 2003).

그는 정식으로 수업을 받은 적은 없지만 수백장의 스케치 등을 하며 많은 시간을 꾸뛰르 하우스에서 보냈으며 자크 에스테렐(Jacques Esterel)과 장 파투(Jean Patou), 미셸 고메즈(Michael Gomez), 안젤로 탈라치(Angelo Tarlazzi) 등 수많은 프랑스 디자인 하우스에서 일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장 폴 고티에는 1997년 오프꾸뛰르 첫 데뷔 컬렉션을 갖게 되었다.

장 폴 고티에의 제품은 성인 남녀와 아동을 위한 기성복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와 오프꾸뛰르 '고티에 파리(Gaultier Jeans)', 그리고 가죽 제품과 아이웨어, 주얼리, 우산, 스카프와 타이, 슈즈, 향수 등을 다루는 액세서리 라인 등으로 전개되며, 그 특유의 관능미가 넘치는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향수병의 모티브인 여성의 바디 토르소는 그의 컬렉션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디자인에서도 주요 이미지 원천이 되는 관능미의 심벌이자 장 폴 고티에만의 페티시 요소이며, 마돈나의 '블론드 앰비션 투어(Blond ambition tour)'의 콘 코르셋 과 함께 그의 페티시즘적 요소를 더욱 부각시켜주는 아이টে็ม으로 평가할 수 있다.

### 2. 페티시즘(fetishism)

페티시(fetish)란 마술적 매력(magic charm)의 의미로서 조제품·인공물·외관과의 표식을 위한 모든 노력을 뜻하며, 페티시즘(fetishism)은 종교적, 인류학적 의미로서 고대의 목가제품이나 우상을 숭배했던 원시인들의 비이성적인 숭배를 의미한다(Fashion dictionary, 1995).

프로이트는 그의 저서인 「성 이론에 대한 3가지 의견(Three Contributions to the Theory of Sex)」에서 페티시즘 환자가 성적 만족을 얻는 대상은 '미개인들이 그런 물건에서 그들의 신을 형상화하는 것'과 견줄 만 하다면서 페티시즘을 정신의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즉, 페티시즘이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비성적인 물건-성적 경향이 없는 인체 부위, 의류 등-을 필요로 하는 정신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증상은 거의 남성에서 주로 나타나며, 대부분 대상은 여체 또는 여성 의류에 관련된 것이다. 긴 머리카락이나 발은 우선적으로 성적주의를 끄는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특정한 대리색 또는 신체상의 결점이 성적 자극을 일으킨다면 페티시즘으로 분류된다.

복식에서의 페티시즘은 이성의 복식이나 특정 아이템에 성적 환상을 부여하고 관능적으로 연출하는 일련의 의복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성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의 저항과 일탈 성의 정체성을 표현하며 유희적 성향을 띠기도 한다(송명진, 채금석, 2001). 또한 페티시즘은 애정대상의 대용물로서, 하이힐이나 타이트 레이싱 코르셋 같은 의복 아이템과 발, 머리카락 같은 신체부위에 대해 성도착증적 집착을 보인다. 주요 페티시 대상으로 선택되는 것에는 발, 머리카락, 피부, 허리, 가슴과 같은 신체적 특징, 그리고 의상이나 구두, 페티코트, 코르셋 같은 특정 아이템 또는 모피, 실크, 벨벳, 고무 가죽 등의 소재가 있다.

이렇듯 성을 하나의 코드로 인식하는 페티시즘이 현대 사회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더 이상 개인의 '성도착'이나 '성적 하위문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태까지 은밀했던 행위들이 대중문화를 통해 점차로 가시화되고 있으며, 페티시한 도구와 이미지가 스타일 요소로서 대중패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이의정, 양숙희, 1997).

### III. 장 폴 고티에의 페티시즘에 관한 고찰

#### 1. 컬렉션에 나타난 페티시즘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패션에서의 페티시즘의 요소는 매우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에 컬렉션에 나

타난 페티시즘의 분석을 위해 의상학 관련학문을 전공한 패션 전문가 집단 20인의 그룹화한 결과를 토대로 페티시 요소를 신체 강조, 아이템, 소재에 의한 페티시즘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 1) 신체 강조에 의한 페티시즘

장 폴 고티에는 여성의 바디를 주 소재로 다양한 작품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컬렉션을 통해 고티에 특유의 관능미가 내제된 페티시즘을 표출하였다.

기존의 장 폴 고티에는 여성의 가슴 및 성기부분을 강조하는 신체강조에 의한 페티시즘의 요소를 부각시키며 컬렉션을 전개하였다. [그림 1]과 같이 가슴부분을 노출시켜 가터벨트의 형상으로 유두부분을 연결하는 디자인 및 캣 수트 위에 가슴과 성기부분의 리터치를 시도한 과감한 디자인을 통해 페티시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은 핑크색 립스틱으로 소녀 이미지를 연출한 모델의 입술부분에 벨트 고리 장식을 첨가한 의상 작품이다. 중세 모티브를 내제한 이 작품은 기존의 가슴과 성기에만 집착하였던 고정관습에서 벗어나 여성의 작고 도톰한 입술의 성적 이미지를 통해 페티시즘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그림 3]에서도 가슴과 성기부분의 노출이 없는 기존테일러드 수트에 허리라인만을 노출시켜 마치 과거 코르셋에 구속되었던 신체를 형상화 하는 느낌의 시각적 효과와 그를 통한 페티시즘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신체 강조①  
05F/W Paris Collection



[그림 2] 신체 강조②  
06 S/S Paris Collection



[그림 3] 신체 강조③  
06 F/W Paris Collection

## 2) 아이템에 의한 페티시즘

페티시즘은 특정 아이템을 통해 페티시의 요소를 발산한다. 그 중 속옷과 신발을 페티시즘의 대표적 아이템으로 들 수 있으며, 특히 하이힐은 남편이나 하인에 의해 움직일 수 있었던 육체적·신체적 '구속'의 아이템이다(이익정, 양숙희, 1997).

[그림 4]는 브리프와 코르셋의 코디네이션으로 속옷의 곁짓화 현상을 불러일으키며 사도마조키스티즘(sadomasochism)적 회열을 발산하고 있다. 특히 스타킹의 봉제선이 브리프 위에 그대로 나타남에 따라 페티시즘의 강력한 시각적 호소력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현대의 속옷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그림 5]는 누군가 벗겨놓은 듯한 코디네이션 연출로 '남성 지배와 여성 복종'의 의미를 내포하는 에로틱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곁짓의 벗겨짐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아닌 오히려 육체적 쾌락의 의미를 내포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페티시의 주요 아이템으로 부각되는 [그림 6]은 화려한 색채와 보석장식의 하이힐을 통해 페티시즘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여성의 나약함과 순종적 의미를 힐 끝의 곡선으로 표출하여 남성의 시각을 자극하는 요소로 컬렉션에 등장하고 있다.

## 3) 소재에 의한 페티시즘

소재는 기하학적인 디자인보다 먼저 시각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자극물이며 페티시즘 의상의 산물이다. 송명진,

채금석(2001)의 연구에서는 증세의 기하학적 문양들, 앤디 워홀(Andy Warhol)의 다양한 색감과 채색된 동물 표피의 소재들, 동양이나 카우보이 복장의 세부장식 또는 아프리카 부족의 가면, 원시적인 바디페인팅 등을 페티시즘적 이미지의 요소로 구분 짓고 있다.

장 폴 고티에는 이러한 페티시한 소재를 기본으로 다양한 디자인을 시도하여 인간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은밀한 성적 취향을 과감히 노출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은유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그림 7]의 동물 표피의 소재는 여성의 야성성을 내재한 원시성을 발산하며 육감적 매력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인간 본연의 근본을 동물에서 찾을 수 있음을 내재하고 있으며 자연적 성욕의 탐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소재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8]은 시스루 소재와 니트의 결합으로 신체의 감촉과 드러냄을 표현하여 선정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성적인 분위기를 유발하지 않는 소매, 발목 등의 부위를 과장하여 신체가 그대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시스루 소재로 인한 간접적으로 비춰지는 페티시즘을 발산하고 있는 것이다. 브릴리언트 소재 [그림 9]또한 여성의 관능 부위에 부분적으로 작용하여 시각적인 집중효과를 불러온다. 이는 곧 신체가 억압되거나 은폐되어 증폭된 욕망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며 페티시즘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그림 4] 아이템①  
06 F/W Paris Collection



[그림 5] 아이템②  
03 S/S Paris Collection



[그림 6] 아이템③  
06S/S Paris Collection



[그림 7] 아이템①  
03 F/W ParisCollection



[그림 8] 아이템②  
06 F/W Paris Collection



[그림 9] 아이템③  
06 F/W Paris Collection

## 2. 대중문화에 나타난 페티시즘

### 1) 영화의상에 나타난 페티시즘

영화의상은 영화 고유의 캐릭터 이미지에 부합되어야 하며, 제한된 범위 안에서 디자인을 전개해나가야 하는 특성을 지니므로 디자이너 특징을 극대화 시키기에는 어려운 제약점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적 상황에서도 장 폴 고티에는 그 특유의 페티시한 요소를 영화의상 속에 접목하였으며, 컬렉션에서 보여주었던 페티시즘을 캐릭터를 통해 재현하고 있다.

특히 영화 「요리사, 도둑, 그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정부」의 관능적이며 요염한 여주인공은 도둑에게 자위행위를 강요당하여 페미니즘적 반발을 높이 샀던 캐릭터로 설정되어 있다. 그녀는 유태인 지식인을 만나지만 곧 도둑에게 들리게 되고, 유태인은 도둑에게 살해당한다. 연인의 죽음에 슬퍼하던 도둑의 아내는 요리사에게 자신의 연인을 요리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요리를 도둑에게 가져가 억지로 먹기를 강요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이 영화는 푸코(Michel Paul Foucault)의 여성학적 측면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되어왔다. [그림 10]의 의상에서도 나타나듯이 코르셋을 모티브로 세장에 갇힌 듯 한 여성의 육감적인 몸매를 드러내어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며 페티시 요소를 신체에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다.

또한 지구의 미래를 바꿀 5원소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한 미래의 뉴욕을 상상하며 제작되었던 영화 「제 5원소」에서도 장 폴 고티에의 페티시즘적 요소를 찾아 볼 수 있다. 특수효과를 이용하여 스펙타클한 화면이 전편을

압도하는 이 영화는 영화 「레옹」과 「그랑부르」 등으로 국내에서도 그 명성이 알려진 뤽 베송(Luc Besson)의 작품이다. 할리우드 스타들의 완숙한 연기와 미래세계의 생활을 기상천외한 상상력으로 그려낸 장 폴 고티에의 의상의 결합으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97년 5월 칸 영화제 개막 초청작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특히 장 폴 고티에는 이러한 분위에 어울리는 디자이너 특유의 페티시 요소를 표출하며 파격적인 디자인의 의상을 보여주었다. [그림 11]의 여주인공은 신체의 관능부위에 흰 붕대를 두른 듯한 의상을 중심으로 극을 진행시켜나갔다. 다양한 의상이 등장하는 다른 영화와는 달리 [그림 11], [그림 12]의 두 의상만을 선보이였다. 이 의상들은 미래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미니멀한 페티시의 요소를 여성의 속옷과 가터벨트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장 폴 고티에 페티시의 요소는 남성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본 영화에서 남성들은 여성의 전유물이라 생각해왔던 러플장식, 자수, 액세서리, 긴 헤어스타일을 통해 여 등장인물보다 더 관능적인 여성스러운 매력을 발산하며 양성애적인 페티시즘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코르셋이 신체 학대의 의미를 내재한 페티시의 요소를 발산한다면 본 영화에서의 남성 등장인물은 얼굴 및 관능부위에 피어싱을 하여 차별화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그림 13]의 호피무늬 캣 수트는 남성의 육감적인 바디라인을 그대로 드러내어 기존의 직선적인 남성 라인에 대한 반 거부적 형태로 이분법적인 성 개념을 파괴하고 무성 혹은 다중적 성 정체성을 표현하며 페티시즘의 성을 초월한 자유로운 정신세계를 표출하고 있다.



[그림 10] 요리사, 도둑, 그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정부



[그림 11] 제 5원소①



[그림 12] 제 5원소②



[그림 13] 제 5원소③

## 2) 마돈나 의상에 나타난 페티시즘

장 폴 고티에는 페티시 의상을 정당화 하고 정상화 하는 데에 가수 마돈나를 통해 그의 페티시즘을 표출하였다. 마돈나는 성 정체성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며 다양한 패션을 주도했던 미국의 대표 여 가수로, 페티시즘에 관한 대중화를 불러일으켰다. 마돈나의 이러한 페티시즘의 표출은 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와의 결합으로 더욱 확대되어왔다. 가터벨트와 코르셋으로 구성된 의상을 입어 극단적인 관능부위의 강조를 통한 페티시의 요소를 발산하며,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남성들을 놀려주기 시작하한 것이다.

특히 1990년 세계 27개국을 돌면서 순회 공연한 블론드 앰비션 투어(blond ambition tour)의 콘 코르셋은 장

폴 고티에의 페티시즘적 요소를 더욱 크게 부각시켜주는 아이템으로, 대중스타 마돈나를 통해 그의 페티시 디자인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허리에 벨트를 두른 후 가터벨트를 늘어뜨린 속옷의 코르셋을 걸었던 팬츠 위에 입고 각진 어깨의 재킷을 입음으로서 테일러드 수트가 보여주는 남성적 이미지와 코르셋이 주는 페미니티의 혼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속옷의 걸음화는 성적인 욕망의 내재와 성적인 호기심, 노출의 스타일을 관능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3) 라이센스 분야에 나타난 페티시즘

장 폴 고티에는 의상뿐만 아니라 향수, 화장품, 기타 제품 라인과 광고, 경계를 두지 않는 폭넓은 예술 활동으로 언제나 화제를 모았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향수는



[그림 14] 마돈나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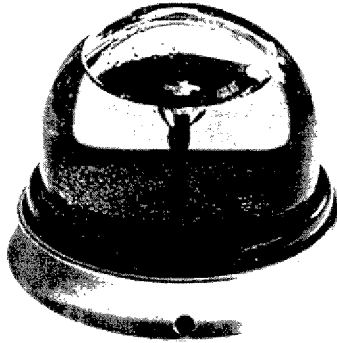
[그림 15] 마돈나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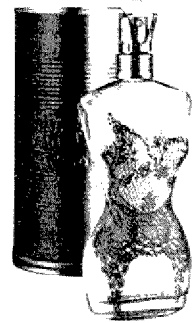
[그림 16] 마돈나③



[그림 17] 향수①



[그림 18] 향수②



[그림 19] 향수③

특유의 페티시 미의식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라이선스 라인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아이템이다.

향수라는 아이템은 후각적 자극이나 호소력을 강하게 발산한다는 점에서 페티시의 주요 대상으로 인지할 수 있으며, 고티에의 관능미를 시각과 후각을 통해 그대로 반영하기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특히 냄새 페티시(smell fetishes)는 욕실의 기능과 관련된 강박관념에 의한 것으로 이는 성의 미발달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은 페티시즘의 관점에서 매우 정상적인 현상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물들이 어떤 후각적 자극에 대하여 성적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이다(이희정, 양숙희, 1999).

이러한 후각적 페티시 요소는 여성의 바다 토르소와 함께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그의 컬렉션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디자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장 폴 고티에만의 관능미의 심벌이자 페티시즘의 한 현상으로 자리 잡아왔다.

#### IV. 디자인 개발

III장에서 살펴봤듯이 장 폴 고티에는 컬렉션 및 영화 의상, 라이선스 디자인 분야에서 그만의 독특한 페티시즘적 요소를 표출하고 있었다. 특히 디자이너의 패션세계를 잘 드러낼 수 있었던 장 폴 고티에의 컬렉션에서는 신체 강조에 의한 페티시즘, 아이템에 의한 페티시즘, 소재에 의한 페티시즘 등으로 그 특징적인 페티시의 요소가 드러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IV장에서는 각 요소별 도출된 고티에의 페티시즘을 통한 디자인 개발을 통해 실증적 연구를 전개하였다.

#### 1. 컨셉

본 디자인의 전체 컨셉은 'Fantasy of missing' 으로 인간 내면의 본래적 가치를 추구하는 페티시즘적 이미지를 표출하였다. 단지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성의 수치심을 극복하는 형식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내재적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페티시즘이 반영된 '옷'을 선택한 것이다. 성의 무한한 욕망의 표현을 세 별의 의상을 통해 세가지의 미스테리한 판타지로 해석해보았다.

첫 번째 디자인은 신체강조에 의한 페티시즘의 표현이다. 어둠속에서 비치는 실루엣이 시각적인 자극을 더 주는 이유는 감추어짐 속의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의 상상력은 노출과 감춤의 페티시 미학을 표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유두점만을 가리고 가슴라인을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두 번째 디자인은 아이템에 의한 페티시즘의 표현이다. 흘러내린 듯 한 블라우스 셔츠와 비대칭형의 웨스턴 부츠는 성적인 공간으로부터 탈출하여 여성 본연의 자유를 찾고자 하는 원시적인 몸짓을 표현한 아이템이다. 이러한 아이템들은 여성의 성기에 시선을 멈출 수 있는 브리프와의 결합으로 페티시 요소의 시너지 효과를 발산하고 있다.

세 번째 디자인은 소재에 의한 페티시즘의 표현이다. 원시적이며 성적으로 수치심 없는 아프리카의 자유로운 야생동물을 상징하는 소재들을 중심으로 디자인하였다. 모래사장 위를 달리는 카우보이를 모티브로, 카우보이의 손에 들려있는 끈을 여성의 다리를 묶는 끈으로 그 위치와 역할을 바꾸어 표현하여 보폭을 매우 좁게 하여야만 걸을 수 있는, 혹은 움직일 수 없는 나약한 여성의 성적 위치를 말해주고 있다.

2. 소재

II장에서 언급하였던 페티시한 소재인 제브라, 호피 등의 동물표피 문양과 카우보이 복장의 세부장식 소재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하위문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핑크적인 요소가 페티시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관점에 착안하여 핑크적 요소의 소재를 전체 이미지에 활용한 디자인 개발을 시도하였다.

3. 색상

성적인 관능미를 표출하는 블랙과 레드를 중심으로 전개하였으며, 페티시즘의 다양성 추구를 위해 여러 색상을 서브로 믹스매치 하였다. 특히 관능적이며 와일드한 소재의 느낌에 따라 변화하는 색의 변화를 꾸밈없이 드러내어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4. 디자인 제시

이를 토대로 페티시즘에 관한 세벌의 작품제작을 시도하였으며, 그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V. 결론

본 연구는 페티시 요소를 그 특유의 미학으로 표출하

〈표 1〉 작품 디자인 계획표

	구분	아이템	소재	색상
디자인 ①	신체강조에 의한 페티시즘	코트 탑 스커트 부츠	퍼 체인 레이스 데님	그레이 실버 네이비 블랙
디자인 ②	아이템에 의한 페티시즘	블라우스 셔츠 브리프 웨스턴 부츠	데님 가죽 레이스	핫핑크 블루 베이지
디자인 ③	소재에 의한 페티시즘	웨스턴 모자 탑 브리프 스타킹 니삭스	가죽 체인 레이스 데님	화이트 핑크 네이비

는 페티시즘과의 상관관계가 유기적으로 얽혀져 있는 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를 중심으로 디자인 속에 내제되어 있는 페티시즘이 그의 작품세계에서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현대패션에 나타난 장 폴 고티에의 페티시즘 패션세계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관능미를 내재하는 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는 패션 전문가 집단의 컬렉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스타일의 페티시즘-신체 강조, 아이템, 소재에 의한 페티시즘-으로 구분지어 졌으며, 각 분류간의 독특한 페티시 요소를 발산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컬렉션뿐만 아니라 장 폴 고티에의 영화의상 및 라이선스 분야에서도 주어진 설정 속에 여성의 신체를 모티브로 다양한 성적 상상력을 일으키게 하였던 디자이너 특유의 페티시즘을 반영한 관능미의 상징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림 20〕 디자인①  
신체강조에 의한 페티시즘



〔그림 21〕 디자인②  
아이템에 의한 페티시즘



〔그림 22〕 디자인③  
소재에 의한 페티시즘



셋째, 도출된 장 폴 고티에의 페티시즘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 속하는 세 벌의 작품을 디자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성적인 내재적 욕망을 잘 드러내며 페티시 요소를 발산하는 시각자료를 제시하였다.

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의 '성'을 모티브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던 본 연구가 현대패션의 흐름을 파악하고 디자인을 창작함에 있어 새로운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 페티시즘에 관한 긍정적인 관점이 부족한 현실에서 다양한 하위문화요소와 페티시 요소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고찰을 후속연구로 제안한다.

주제어 : 장 폴 고티에, 페티시즘, 페티시, 관능미

### 참 고 문 헌

- 김주영·양숙희(2002). 마돈나 의상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뮤직비디오 텍스트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제10권 제1호
- 김희선(2004). 장 폴 고티에의 영화의상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세계 유명 디자이너의 생애와 작품세계1 (2000). 서울, 라사라패션정보.
- 송명진·채금석(2001). 현대 남성패션에 나타난 성 정체성의 표현양상. 한국의류학회지 25권 2호.
- 이순홍(2002). 세계복식과 패션정보. 서울, 교문사.
- 이의정·양숙희(1999). 패션에 나타난 페티시즘 연구-언더웨어 페티시. 한국의류학회지 23권 2호.
- 이의정·양숙희(1999). 패션에 반영된 페티시즘 연구-콜셋과 슈즈의 예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1호.
- 임소영(2003). 장 폴 고티에 패션 디자인의 조형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규화, 구인숙, 금기숙 (1995) *Fashion dictionary*. 서울, 경춘사.
- Anne Stegemeyer (1996). *Who's in Fashion*. Fairchild Publications.
- Colin Mcdowell (2000). *Jean Paul Gaultier*. Viking Studio

(2006. 07. 27 접수; 2006. 10. 16 채택)